

<민주노총 사회공공성포럼 보건의료분야 정책토론회>

“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”

1. 취지

- 새롭게 출범한 신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은 시장역할 확대와 개인의 책임 강화이며,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음.
- 신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은 영리를 지향하는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으로 ①영리병원 도입, ②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③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 임.
- 이는 취약한 우리나라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보건의료체계 파괴와 의료비 폭등 등 일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 올 것임. 그럼에도 정부는 본질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.
- 이에 「보건의료노조」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국민건강권과 국민건강 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대표와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.

2. 개요

- 1) 주제 : “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”
- 2) 일시 : 2008년 5월 23일(금) 오전10시 - 12시
- 3) 장소 :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
- 4) 주최 :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

3. 구성 및 진행

- 1) 좌장 : 신영전 교수 (건강연대 정책위원장, 한양의대)
- 2) 주제발표 (20분)  
“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”  
: 윤태호 교수 (건강연대 정책위원, 부산의대)
- 3) 지정토론 (각 10분)
  -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
  - 행동하는의사회 임석영 대표
  - 대전참여자치연대 유원섭 협동사무처장
  -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실장
  -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서현철 정책실장
- 4)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